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동향과 활성화 방향

- 에너지 절약 및 배기가스 감소를 위하여 자동차 통행 규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구조, 토지이용, 그리고 최근 사회변혁의 주요 원인인 정보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재택근무(telecommuting)는 이러한 대안 중의 하나이며,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재택근무를 시행 중임
-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실정이나,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시행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재택근무는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고정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및 주부 등 노동인력의 보다 유연성 있는 활용을 가능케 함
- 그러나 재택근무 관련 법적 장치가 선언적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며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확대, 원격근무센터의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1. 재택근무의 필요성

-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세계 141개국의 비준으로 '05. 2월 발효됨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과다 배출국에 대한 무역규제 등 '녹색전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도 2차 감축기간(2013~2017)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전망이므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대기오염 배출의 주 원인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이며 이는 대도시권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나, 기존의 부제,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규제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교통 자체보다는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 측면과 연계된 대안이 제시되거나, 최근 사회변혁의 주요 원인인 정보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택근무가 이러한 대안 중의 하나임
- 교토의정서 내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4년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원단위개선3개년('05~'07)계획」 중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 포함됨
 - 대항목: 교통소통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제도지원 시책
 - 세부항목: 교통량 감축을 위한 재택근무 지원 확대
-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머지않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시행의 유리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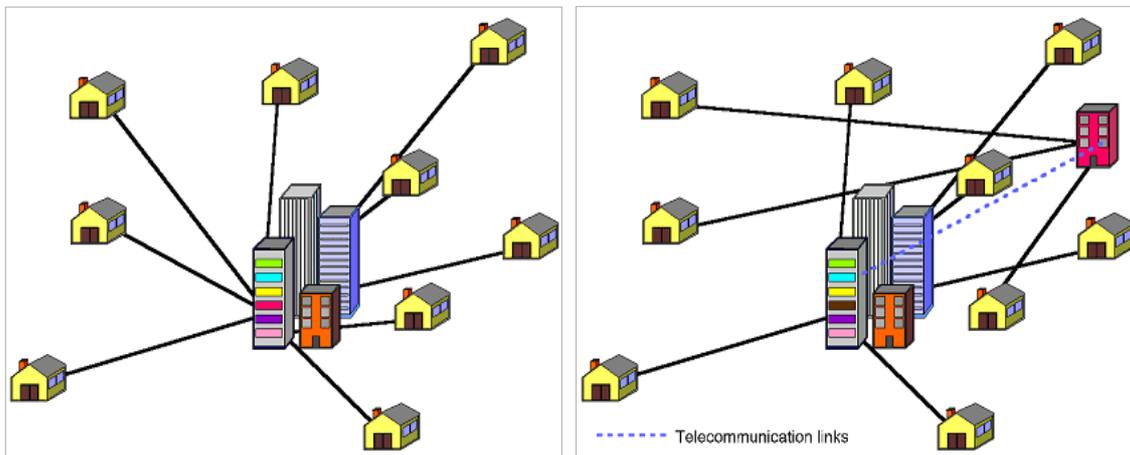
2. 재택근무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 재택근무(telecommuting)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 혹은 집 주변의 원격근무센터(telework center)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활동을 의미함

[그림 1] 재택근무의 분류

가내근로 (home work) ※ 자영업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음		재택근무 (협의)	원격근무	텔레워크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함				
텔레커뮤팅 (telecommuting) ※ 사무실 근무 대체	집에서 근무 (home-based telecommuting)		재택근무 (광의)	원격근무	텔레워크
	원격근무센터 (telework center) 근무	지역기반 원격근무센터 (community-based center) 근무			
		원격위성사무소 (satellite office) 근무			
모바일 근무 (mobile work) ※ 사무실 지원	사무실 외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수행				

[그림 2] 원격근무센터의 개념도



도심에 위치한 회사에서의 근무

도시 외곽의 원격근무센터에서의 근무

- 재택근무의 확산은 전통적인 형태의 출·퇴근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일상생활에서 없애는 것으로, 사람들의 직·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토지이용과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공간계획 측면에서의 재택근무 연구는 주로 정보화로 인한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효과분석이 대부분이며, 재택근무가 아직 정착화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수요 변화 예측도 다양하게 나타남
- 토지이용, 도시공간구조 및 환경 측면의 영향분석, 또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요인 분석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3. 국내의 재택근무 현황 및 전망

- 미국 주요 대도시권의 2000년 총 고용에 대한 재택근무 비율은 평균 3.6%이며 이는 1990년과 비교하여 24.1% 증가한 수준임

[표 1] 미국 주요 대도시권의 재택근무 비율(%)

대도시권	1990년	2000년	증가율
로스앤젤레스	2.7	3.6	33.0
샌프란시스코	3.5	4.1	17.1
보스턴	2.5	3.1	24.0
시애틀	3.4	4.2	23.5
밀워키	2.2	2.5	13.6
캔자스시티	2.8	4.1	46.4
포틀랜드	3.8	4.6	21.1
시카고	2.1	2.9	38.1
평균	2.9	3.6	24.1

출처: Nilles. 2005. The Urban Transportation Monitor.

- 유럽의 경우는 재택근무가 미국보다 더욱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의 연구기관인 엠프리카(Empirica)는 2005년 유럽연합(EU) 전체 노동력 중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약 1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20% 이상으로 높고 서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10% 이상임

[표 2] 유럽 기업의 재택·원격근무 시행 비율 (1999, %)

국가명	재택근무 시행 회사	원격근무 시행 회사
덴마크	26.9	57.9
핀란드	22.4	59.3
프랑스	8.3	35.0
독일	13.3	29.9
아일랜드	13.5	29.1
이태리	4.7	17.2
네덜란드	18.7	46.0
스페인	7.8	20.0
스웨덴	22.4	61.7
영국	24.5	55.0
평균	13.9	35.8

출처: www.ecatt.com

-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직장공동체의 중요성, 주거공간의 협소 등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재택근무가 활발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재택근무자 수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일본 우정성이 1997년부터 최초로 공무원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 IBM, 후지쯔 등 IT관련 대기업에서 현재 시행 중임
 - 일본 오라클은 2005년부터 거의 전 직원(1,448명)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임
-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기관에서 재택근무를 시도하였으나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며 시행을 중단한 기관도 있음
 - 한국전산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직원 5명 이상의 업체 중 재택근무(모바일

워크 포함)를 시행하는 업체는 2.6%에 불과함

- 이코노플러스지의 IT기업 설문조사('05)에서는 4.1%로 나타남
-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05. 3월부터 56명(전 직원의 약 8%)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운영 중임
- 기타 일부 텔레마케팅, 물류, 제약 및 보험회사 등에서 시행 중임

[표 3] 우리나라의 업종별 재택근무 현황 (2004)

업종	전체 사업체 수(개)	시행 사업체	
		업체 수(개)	비율(%)
농림수산업	2,185	40	1.8
경공업	40,489	465	1.1
중공업	50,618	982	1.9
석유 화학	23,372	351	1.5
건설업	35,140	309	0.9
유통업	170,826	4,424	2.6
금융보험업	25,249	1,762	7.0
기타 서비스업	148,712	4,465	3.0
계	496,591	12,798	2.6

출처: 한국전산원 협조자료

- 관련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향후 재택근무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함
 - 특허청 재택근무직원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체설문조사 결과에서는 44명 중 40명 (90.9%)이 지속적인 재택근무를 희망함
 - 이코노플러스지의 조사에서도 만족 75%, 보통 25%로 나타남
 - 한국IBM의 시범운영 참여자의 95%가 만족함

4. 재택근무 활성화의 요인

- 재택근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피고용자, 고용자, 그리고 사회전체의 긍정적·부정적 요인의 분석이 필요함

[표 4]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부정적 요인 분석

이해당사자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근로자 (피고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생활 리듬과 취향에 맞는 작업 환경 가능 •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업무와 가정생활의 조화(육아문제 해결 등) • 출·퇴근 시의 문제점 완화(시간 절약 및 스트레스) • 교통비, 의복비, 식비 등 절감 • 개인적 시간관리에 따른 복수직업(multi-jobs) 보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접촉의 감소로 인한 인간관계의 축소 • 가정에 대한 안식처로서의 의미 감소로 집의 기능이 모호해짐 • 시간에 대한 자기통제 노력 필요 • 가사일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능률 저하 우려 • 업무집중을 위한 주택구조의 비합리성 • 주변기기와 통신 장비의 고비용 • 지위에 대한 안정성 위협 우려
회사 (고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연한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 사무실 비용 등 시설관리비 감소 • 정보통신산업계의 부족한 인력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 • 부드러운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몰입도 및 회사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식 저하 • 업무에 관한 신속한 협의의 어려움 • 자료 및 프로그램의 유출 등 보안상의 취약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 및 사무실 유지비 등의 자원 절약 •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입지적인 제약을 줄임으로써 종래 고용시장에 있어서는 어려운 지역 및 계층(장애인, 주부 등)에 까지 고용기회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가진 사람들(information-rich, information haves)과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information-poor, information have-nots) 사이의 계층갈등 우려 •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신세대)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기성세대) 사이의 세대갈등 • 정보통신기기의 구입에 부담할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르는 갈등

5.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관련 제도의 정비

- 재택근무 관련 법적 장치가 선언적으로만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재택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재택근무 시행으로 인하여 직원이나 회사에 경제적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임
- 재택근무 초기비용 보조, 조세 관련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료의 저렴화와 관련된 혜택이 중요함

● 시범사업의 확대

- 재택근무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음(공공부문 우선 시행)
 -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교통사고,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 시간 낭비 등의 총 비용에 대한 포괄적 조사 병행

● 재택(원격)근무센터의 도입

- 재택근무자의 주변환경상의 한계, 안전과 보건에 관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무실과 동일한 수준의 근무환경 및 지원시설을 갖춘 재택(원격)근무센터를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함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형태의 센터와 대기업 등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설치한 위성근무센터가 운영 중임

●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정진규 연구위원 (031-380-0390, jkchung@krihs.re.kr)